

쉬는 것이 명령이다.

성경본문 <출애굽기 16장 22절 ~ 30절>

[22]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5]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26]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순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5일 동안 날마다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거두어 드리는 것과 6일째는 안식일(7일)에 먹을 음식까지 두 배를 거두어 드리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 것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십계명의 구체적인 명령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쉬는 것이 명령입니다. 순종이 먼저, 훈련이 먼저입니다.

[22]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5]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아서, 안식일 날에는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인,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몸이 편안하고, 시간이 한가한 것은 보여지는 한 부분일 뿐이고,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창 2:1-2)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을 하신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7일 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식이 포함되어야 비로소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쉬는 것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과의 회복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게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거두는 작은 행동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쉬는 것은 명령이고, 이것에 대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생업에 대해서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작은 순종들과 함께 일의 완성을 위해 물러나 쉴 것을 말씀하십니다.

2.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됩니다.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는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신의 집에서 나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정하신 후에, 쉬는 것부터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시작은 ‘이 날은 일이 아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이며, 가족들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누구의 말을 듣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안식일(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고민이 우리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며,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인생을, 기회를)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주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소서.
2. 시간 사용에 있어서 항상 주님께 묻고 순종하게 하소서.